

SEPTEMBER
2013
VOL.17

SENIOR 조선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Come Inside
캐나다 온타리오로 떠난
리마인드 허니문
60代를 준비하는 자세





WHY JUST BE PRECISE WHEN YOU CAN BE THE MOST PRECISE?



THE CHALLENGE

예거 르쿨트르만의 탁월한 듀얼 웁 컨셉이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듀오미터 스페로투르비옹은 일반적인 평면 투르비옹과 달리 시계의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다축 투르비옹을 탑재했습니다. 스몰 세컨드 플라이백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초 단위까지 세팅 가능한 3차원 투르비옹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INVENTION

1833년 시계사에 있어 혁신적인 발명가로 여겨지는 양트완 르쿨트르는 현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전신인 공방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예거 르쿨트르는 지난 180년간 약 400종 이상의 시계 제조 관련 특허권 및 1,231개의 자사 무브먼트 제작이라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첨단 기술로 21세기 시계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거 듀얼 웁 컨셉입니다. 하나의 시계 케이스 안에 탑재된 배럴 2개가 여러 기능에 각각 독립 에너지원이 되도록 설계한 시스템으로 듀오미터 스페로투르비옹에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투르비옹 시계도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시간 세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듀얼 웁 칼리버 382는 플라이백 원리를 이용해 초단위까지 세팅할 수 있는 최초의 다축 투르비옹 시계로 예거 르쿨트르의 혁신을 향한 정신과 전통을 잊고 있습니다.

AVANT-GARDE EXPERTISE

듀오미터 스페로투르비옹은 다축 투르비옹을 장착한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회중 시계를 위해 고안된 과거 전통적인 투르비옹은 모든 방향에서의 중력을 완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또 다른 회전축이 필요한데 예거 르쿨트르는 기존축에서 20도 기울어진 각도로 회전할 수 있는 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결과 2개의 회전축으로 움직이는 스페로투르비옹이 탄생했고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중력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투르비옹은 여러 부품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티타늄 블록으로 제작한 투르비옹 캐리지, 2개의 터미널 커브를 결합한 실린더 형태의 밸런스 스프링, 고탄성 골드 밸런스 등 예거 르쿨트르만의 독자적인 전문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스페로투르비옹을 장착한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382는 매뉴팩처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지름 42mm, 두께 14.1mm의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3차원의 입체적인 투르비옹의 원무를 보여주는 듀오미터 스페로투르비옹은 예거 르쿨트르의 독보적인 기술적 성취이자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컴플리케이션으로 21세기 시계사에 탁월한 창조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DUOMÈTRE SPHÉROTOURBILLON. Jaeger-LeCoultre Calibre 382.
YOU DESERVE A REAL WATCH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02 756 0300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02 3467 8631
현대백화점 본점 02 3449 5912 • 갤러리아 EAST OPENING SOON

Manufacture Jaeger-LeCoultre,
Vallée de Joux, Switzerland, since 1833.
www.jaeger-lecoultre.com



inside

VOL.17 SEPTEMBER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10

- 06 SECOND LIFE** 60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예순, 마음이 아무리 청춘이라 한들 피해갈 수 없는 나이. 그 예순이 찾아오기 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
- 08 PEOPLE** 서울에서 만난 우리 시대 청춘
장인의 삶에서 한 수 배운다. 평생 한길만 고집스레 걸어온,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시대의 스승에게.
- 10 TRAVEL** 캐나다 온타리오로 떠난 리마인드 허니문
결혼 37년 만에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떠난 어느 특별한 부부의 리마인드 허니문, 그 아름다운 현장 속으로!
- 13 LIVING** 패시브하우스, 건강을 부탁해!
에너지 절약 주택으로만 알려진 패시브하우스는 알고 보면 종·장년층을 위한 '건강지킴형' 주택에 더 가깝다.
- 14 LOOK** 헬로, 미스터 브라운!
울기울에 갈색에 대한 날은 편견 따위 버리는 편이 좋겠다. 무겁고 촉촉한 이미지를 벗어던진, 한층 개주얼하고 감미로운 갈색이 온다.
- 15 WATCH** 시계 컬렉션
홍콩에서 열리는 버쉐론 콘스탄틴의 '소리를 내는 시계'전과 명품 시계 브랜드 소媚, 피아제에서 선보인 새 컬렉션을 소개한다.
- 16 THIS MAN** 김영재 (주)세한프레시전 대표
김영재 대표는 한디로 풍부한 김수성의 소유자다. 지난 30년간 그가 공동으로 찍은 사진 속 풍경들에서는 특유의 쓸쓸함이 묻어난다.
- 17 SENIOR EXPO** 시니어엑스포에 참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은 마케팅의 첫걸음, 10월 열릴 서울 국제시니어엑스포는 시니어산업 관계자들에게 절호의 기회다.
- 18 THIS CAR** K9과 떠나는 건축 기행
기아자동차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축 기행 세 번째 장소는 1916년 준공한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 배재학당. K9과 배재학당은 묘하게 닮은 구식이 있다.
- 20 SENIOR CARE** 부모님의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인 케어가 필수다. 연로한 부모님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자.
- 21 HEALTH**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
'꽃보다 할배'의 막내 백일섭은 스위스의 철경 앞에서도 걷는 게 두렵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다.
- 22 FINANCE** 절세를 활용한 효과적 증여와 상속
자산관리의 기본은 절세에서 시작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 낙처를 세금 폭탄에 대처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에 대해 소개한다.
- 23 BULLETIN** 이달의 소식
최고급 소재로 만든 일비중떼의 브리프케이스, 탄력 잎은 피부에 힘을 불어넣어줄 '뉴 스웨덴 에그백', 몽블랑의 '오노레 드 벌자크' 에디션 등 알아두면 유용한 아이템과 정보들.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looc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oook49@naver.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인 별디자인
미술교정 봉수연 swimingb@naver.com
교열 최귀열 gwiyeo61@hanmail.net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마이너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미디어티피에스
출판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등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자일단지, 경기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저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탑10’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DUXIANA®

청담점 | 신세계본점 | 신세계강남점 | 현대무역센터점 | CUSTOMER SERVICE : 02.512.6512~3 | WWW.DUXIANA.COM

SEOUL STOCKHOLM MALMÖ NEW YORK BARCELONA BERLIN COPENHAGEN DUBAI LONDON SAN FRANCISCO BERN BRUSSELS BEIJING HELSINKI DUBLIN

SECOND LIFE



60代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예순이 된 공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바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공자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에게도 예순은 온다.

마음이 아무리 청춘이라 한들 피해갈 수 없다. 그 예순이 찾아오기 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

사전에서 말하는 노인(老人)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몇 살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 노인의 나이를 가리키는 내용은 없다. 보통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는 있지만(노령연금 수혜 연령은 65세!), 이미 옛말이 되버렸다. 60세든, 65세든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보기에게 너무 짧다. 과장을 좀 섞으면 아직 청춘이라 해야 옳다. 그렇지만 20~30대의 청춘과는 분명 다른 청준이다. 무엇이 다른지는 40대와 50대의 격동(!)을 지나다 보면 느끼게 마련. 다수의 전문가는 예순을 인생 2막(혹은 3막)을 여는 시작점으로 본다. 그간의 인생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

미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이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적이 없다(왜?)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청춘이니까. 과연?!. 뭘 준비해야 할지도 도통 모르겠다.

매스컴에서는 온통 금융이나 일자리, 건강 등의 정보를 쏟아낸다. 물론,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60대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것. 이것들을 중심으로 60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자.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나 좌표가 우리의 인생 2막을 180도 바꿀 것이다.

COLUMN

나이든 젊은이여, 인생의 속도를 줄이자!

임병수

창업경영이카데미·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대표

요즘들어 부쩍 시니어란 단어가 저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다. 한국의 시니어 계층은 세청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1955~1963년생을 지칭한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14.6%, 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 성장을 이끌어낸 세대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은퇴 소요 및 노후 불안의 가능성을 지난 계층이기도 하다.

현재 50대를 지나고 있는 이들 세대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몇 년 전에 이미 퇴직을 겪었다. 그러나 예전의 선배들과 달리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간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60대는 '늙은' 대신 '나이든 젊은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만 20~30대처럼 살아사는 곤란하다. 승리에 목매며 매사에 아등바등 열성을 쏟을 수 있는 노릇이다. 어쩌면 60대에 필요한 건 액셀러레이터가 아닌 브레이크일지도. 속도를 줄이는 지혜 말이다.

새로운 나 우리는 흔히 태어나서 직장생활을 하기까지의 30여년을 '퍼스트 라이프(first life)', 직장생활을 시작해 정년 때까지의 30여년을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그리고 자녀를 모두 키우고 오로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이후의 30여년 세월을 '서드 라이프(third life)'로 규정한다. 60대는 바로 서드 라이프, 제3의 삶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일(work)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다. 과연 어떻게?

최근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A 씨, 그는 치열한 업무 경쟁으로 자신과 가족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온 지난 30여년의 세월이 허무하기만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충실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어릴 때의 꿈이 사진가였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그길로 A 씨는 망설임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 사물의 둘다짐과 징검다리를 찾아 집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 주제별로 사진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50대 남성이라면 한번쯤 A 씨와 같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법. 그럴 때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을 추스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를 밀거나 삶에 조급은 우여를 가지고 자신을 찾는 행위. 잘 들여다보면, 가기에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

사회 속 역할 찾기 예순은 '진짜 어른'이 되는 시기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에 어울리는 사회적 책무도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정서적·경험적으로 많은 자신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차별성을 뚜렷이 부각한다면 시니어 개개인의 가치는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으로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에 60대 시니어의 경험과 관록이 더해진다면? 젊은 청년의 변혁이 아이디어가 시니어들의 경험, 연륜과 만나 건강한 경제 주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60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인생을 관조하는 시기인 동시에 자신들의 자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기도 하다. 자신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분명한 건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의 경험과 연륜은 분명 무기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온 퍼스트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를 되돌이보고 다가온 서드 라이프에는 자신에게 더 충실하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일러스트 gelyimages/multis

INTERVIEW

얼마 후 나의 60대는?

지극히 평범한 50대 남자들. 그들이 불현듯 생각해본 자신들의 60대에 대해 말했다.



자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박용대 강남시니어플라자 관장

시니어 복합여가·문화공간 강남시니어플라자의 박용대(59) 관장은 불과 4개월 후면 예순을 맞는다. 60대를 '인생이란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도는 시기'라고 정의하는 박 관장이 꿈꾸는 60대는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재능기부나 후원, 봉사 등의 방식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한평생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고작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협소한 사람이 될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게 60대의 가장 큰 가치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박 관장의 소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지난 2011년 강남구청이 설립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현재 150여 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회원은 7000명에 육박한다. 이곳에서 이미 자신의 소망을 조금씩 실현해가고 있는 박 관장은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에는 시니어들이 인문학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익스피어의 작품과 오페라 감상에 대한 강의를 맙아 진행하기도 한다. 이 같은 활동에는 몇 년 전 사회복지대학원을 수료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박 관장은 25년간 사회생활하며 잊은 공부를 대학원에서 보강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사회복지자는 테두리 안에서 시니어뿐 아니라 청년, 장애우, 실직자 등 점차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관장은 자기 관리 및 투자에도 열심이다. 헬스센터에서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서울 근교의 산에 올라 심신을 단련한다. 여가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푹 빠져 자란다고. 바쁘나 모자르트 CD를 항상 옆에 놓 정도다. "지난 여름휴가 때는 오페라를 보러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과 질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DVD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음악의 현장감과 무대 연출에 큰 감명을 받았다". 강남시니어플라자 회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는 그의 이 같은 경험은 물론 오페라 감상 강의에서 유감없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박 관장은 계획이 많다. "노년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자서전 쓰기 운동'을 벌이고 싶다. 위인이 아닌 우리 주변의 평범한, 그러나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이들의 기록을 남겨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무리하게 도전하는
대신 평화롭게 살겠다!
이재희 바이크앤드 대표



수입 생활자전거 유통·판매업체 바이크앤드의 이재희(58) 대표. 그는 아직 60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준비할 것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간 나이조차 제대로 세지 않고 살았더(웃음)"는 이 대표는 "비는 오는데 원도보러시 없이 고속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느낌"이라고 다기울 예술에 대한 공포(I)를 표현한다. 하지만 그가 꿈꾸는 60대는 분명이다. "우리 세대가 성공만 쫓아 맹목적으로 달려온 세대 아닌가. 이기려고 이등반등의 게임이 여태까지의 인생이었다면, 예순 이후의 인생은 스포츠를 하고 싶다. 새옹이 아닌 스포츠를."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며 우여곡절을 경험한 이 대표에게 40~50대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60대엔 보다 여유를 가지고 삶을 일구고 싶다는 말.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하고 싶다. 지금껏 어딜 가도 출장으로 간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급하게 지나쳐 왔다. 원시림으로 뒤덮인 일본 야쿠시마 섬 같은 곳에서 내가 좋아해 미처없는 자연기를 탈 수 있다면."

6년 전, '늦기 전에 좋아하는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간의 '머리 아픈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자전거 유통·판매업을 시작했다는 이 대표. 자전거가 좋아 자전거를 일로 삼은 그이지만 라이딩은 1년에 고작 두세 번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만큼 바빴다. 그래서 일까. 10년 전 짐깐 배운 드림 연주를 다시 도전하고 싶고, 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한 팝핀댄스도 시작하고 싶다는 이 대표는 그럼에도 자신의 이 같은 '바키크리스트'를 조금은 경계한다. "기꺼이 생각해보니, 바키크리스트를 버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태까지 웃기며 살았는데 예순이 되어 또다시 못 다한 것에 집착하면 인생이 정말 피곤할 것 같다. 무리해서 도전하거나 억지로 애쓰지 않겠다." 예순이 되면 그저 평화롭고 유쾌하게 살고 싶다고. 이 대표는 60대에 대한 준비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금庸 같은 실질적인 준비도 좋지만, 그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인전기는 품을 떠나기 마련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상실감에 대한 준비 말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겠다!
이은재 에이유온그룹 회장

의료기 전문업체 펄스온생명공학 등 4개 업체를 자회사로 둔 에이유온그룹의 이은재(54) 회장. 이 회장 역시 '노인', '시니어' 등의 단어가 생소하기만 하다. "몸은 점점 60대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청춘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친구들과 만나도 20~30대 사설 얘기만 하게 된다." 몸과 마음의 괴리는 깊은 60대를 이 회장은 "존재감을 잃을 수도 있는, 이방인 같은 시기"로 명명한다. 신체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게 미냥 쓸쓸한 일만은 아니다. 삶의 지혜

가 그만큼 축적될 테니까 말이다. 단, 노년의 지혜와 경험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이 회장은 말한다.

"제2의 인생은 노는 게 다가 아니다. '댄스교실' 같은 건 어찌면 국

히 소수의 얘기일지 모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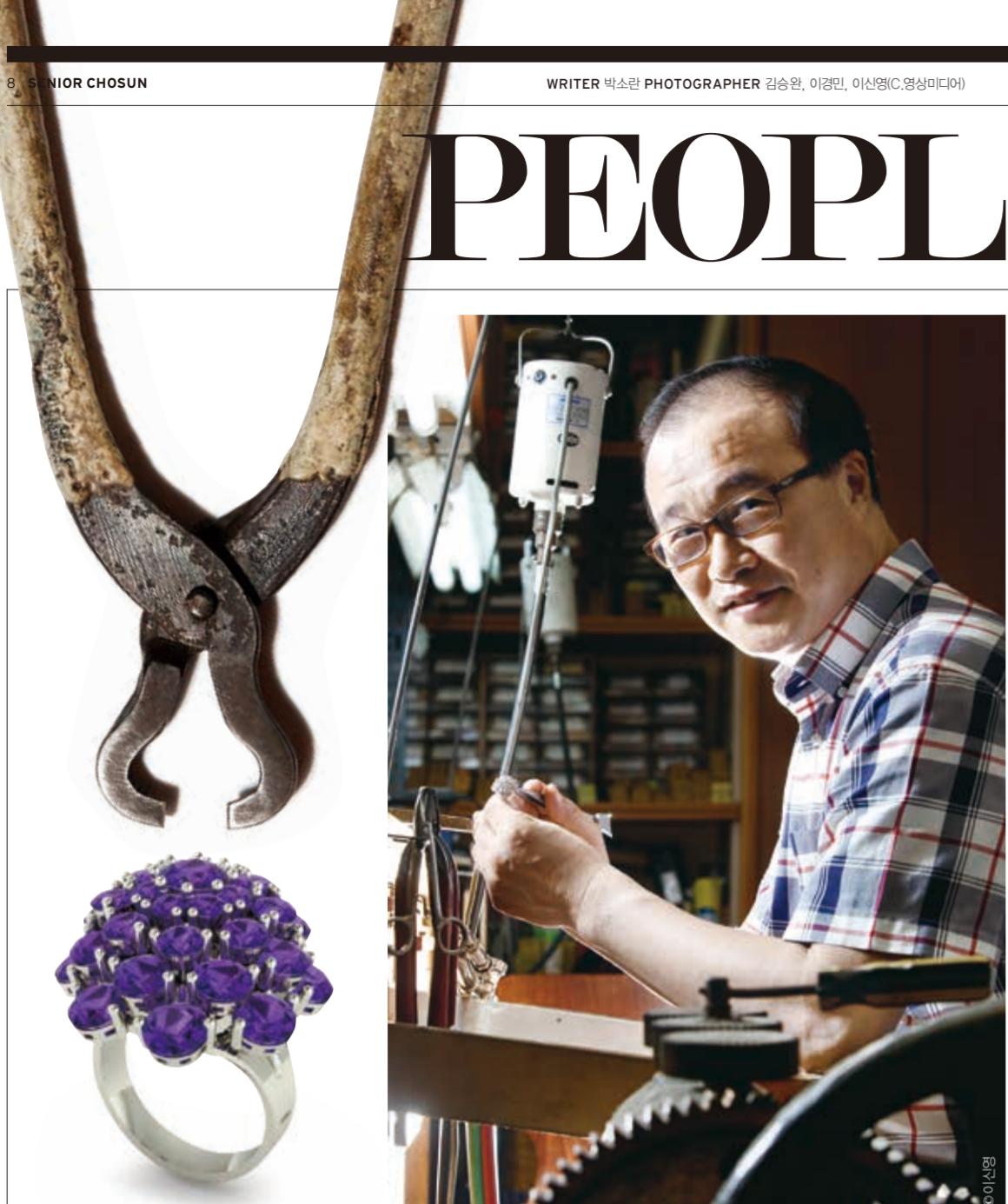
이 회장이 60대를 겨냥한 모토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스스로가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죽어 사회가 나를 내몰더라고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나여, 여태까지 수고 많았다. 내가 널 인정한다고 말해줄자.' 외부의 평가와 기준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마쳤다는 이 회장. 얼마간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활민족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세상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인한 사실.

이 회장은 60대의 자신 모습을 지금의 연장선상에서 그린다. "5년 후쯤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1년 정도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 다음엔 내 능력을 신임투표에 부칠 생각이다. 60%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전문경영에게 회사를 맡기고,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 활동하고 싶다." 최근 영어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60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그런 그는 적은 시골마을에서의 목회 활동부터 해외동포 교육까지 다양한 방면에 뜻을 두고 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에이유온그룹의 오너로 있게 된다면? "섬진강 발원지인 고향 전북 임실을 기점으로 힐링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시니어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예순에 첫걸음을 뜨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이 회장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가족의 한

미디 응원이 혼란한 사회에서 베릴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간 일에 쫓겨 거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다. 60대에는 반드시 가족과 화합하는 좋은 가정이 되겠다(웃음)."

PEOPLE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오래 고통이, 일이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올 때도 적지 않다.
아, 내 깊은 이 깊이 아니 가!
꽤히 머릿속만 보잡해지는 순간이다.
그럴 때, 장이의 삶에서 한 수 배우는 게 좋겠다.
평생 하길만 고집스레 걸어온.
결국 자식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시대의 스승에게.

A close-up photograph of a pair of dark-colored pliers. The handles are inscribed with Korean text. The upper handle features the text "나. 돌아올 때도 척지 않다." and the lower handle features the text "대의 스승에게."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 주얼리장인 |

김종목주얼리 김종목 대표

“값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비싼 것인든 그렇지 않

게나 자기 것이 최고 아닌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보석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다 보면 자연히 세공품의 미려함이 드러난다.” 국내 대표 주얼리 명장 김종목(57) 대표. 그가 업계에 입문한 것은 1974년, 중학교를 갓 졸업한 무렵이다. 강원도 양양 고향에서 상경한 후 신문에서 우연찮게 ‘보석감정과 금·은 세공’이라는 광고 글귀를 발견해 “나는 괴짜가 아님을 알았고, 괴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순간이었다”며 웃는다. 그는 “제가 만든 첫 번째 보석은 1979년에 제작한 흰금 펜던트였다. 당시에는 전국 기관들이 출전, 1979년에는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 그리고 1981년 미국 조지아 주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기에 이른다. 이후 공방 사장은 김 대표에게 독립을 제안한다. “나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독립을 수락했다. 옛말에 ‘주인처럼 일하면 주인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랬다. 주인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견하고 직접 해당 학원을 찾아 김정과 세공기술을 익혔다. “형제들은 모두 공부를 곤잘 하는 편이었는데 나만 유독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 합격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할 정도였다(웃음). 대신 손재주가 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중학생 때 부러진 양산 대를 가져다가 도장을 새긴 일은 아직도 친구들 입에 오르내리는 얘기다.”

당시 학원비는 12만 원. 소 한 마리 값에 해당한 거금이다. 누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원비를 치르고 6개월 과정을 수료한 김 대표는 명동의 한 공방에 취업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취업을 하면 바로 세고자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장에서 기

이후에도 김 대표의 열정은 사그라질 줄 몰랐다. 1987년 신설된 ‘명장제도’가 그의 새 목표가 됐다. 명장 기능경기대회를 자신의 세공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대한민국명장에 선발됐다. 대회를 준비하는 10여 년간 기량이 더는 것은 당연지사.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명장으로서의 의무를 떠올린다. 타인의 귀감은 못 될지언정 절대 손가락질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책임감 말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우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1997년 MJC보석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올 7월까지 약 5000명의 귀금속 기능 인력을 배출했다.

을 하던 바로 세공극장을 소개해 줄 것이다는 기대와는 달리 전경에서 김 대표의 일이라곤 그저 세공제품의 광택을 내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정도였다. “광을 내는 작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산화크롬을 쓰는 탓에 온 얼굴이 새파래지곤 했다. 당시 명동에는 물이 안 나오는 건 물도 많은 터라…….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게 힘들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김 대표는 ‘포기’를 선언한다. 당시 견습생 첫 월급은 2000원. 6년을 꼬박 일해야 학원비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였

김 대표는 지금도 아우를 포근 담담한 편에서 노년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문을 나선다. “습관이 돼서 피곤한 줄을 모른다”는 그는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에 주로 디자인이나 연구에 몰두 한다. 새로운 기술 습득도 젊은 직원들보다 늘 한발 앞선다. 15년 전부터 이미 ‘3D디자인’ 기술을 익혀 활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 작업이라면 80대 노인이 돼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여러모로 안타까움이 컸다. 한 달은 채우고 그만두자는 생각에 꾹 참았다. 그렇게 꼭 한 달만 다닌다는 것이 평생 직업이 될 줄이야….” 그만두겠다고는 했지만 김 대표는 이미 보석을 다루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다른 견습생들과는 달리 학원에서 몇 개월 기초를 다진 덕분에 퇴근 후면 곧잘 혼자 남아 연습을 하곤 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엔 사장이 공방 열쇠를 넘겨주었다. 당시 공방에서 숙직을 디자인과 세공의 전 단계를 지휘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꿈꾼다”를 외치는 그의 완벽주의는 자연히 고객의 발길을 불들 수밖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또 그 며느리까지 3대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인데도 되려 잘 만들어줘 고맙다며 케이크를 사 들고 오시곤 하는데, 감사할 따름이다. 그 작은 성의에 큰 보람을 느낀다.’

“광택 내는 일이, 잔심부름을 하며 거래처를 찾아 다니는 일이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인지는 훗날 알게 됐다. 정말 좋은 경험을 쌓은 것이다. 그때 힘들게 찾아 다닌 거래처들이 훗날 내 고객이 됐다.” 김 대표가 명동의 공방에서 독립한 것은 1981년. 그사이 그에겐 많은 이쯤 되면 지난 40여 년간 그가 성공적으로 한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을 알 만하다. “내가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 단지 일이 좋고 재미있어 매달려왔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전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열성적으로 추진했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맞춤양복 장인 |

복바니에 장준영 대표

구 소공동 일대에 밀집한 비스포크 매장 가운데 단연 손꼽히는 봄
니에 장준영(63) 대표. 전남 순천의 “3대째 빛으로 먹고살 만큼 가
한 집인”에서 태어나 14살에 상경, 신문배달부터 머슴살이까지 안
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장 대표가 양복을 만든 시간은 무려 45년.
1966년 시립삼성직업훈련원 양복과에 입소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만드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도,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식을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는 것이 좋았다. 당시 내게 그런 곳은 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남자가
손 바느질이나는 세간의 비난도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후 일련의 견습 과정을 거친 장 대표는 1971년 명동의 유명 양복점
스모스에 재단사로 입사한다. 적성도 재주도 없었던 그는 남들보다
등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갔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시 사회 분
기는 전라도 출신을 병적으로 꺼렸다.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살아
으려면 옷을 잘 만드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 옷 만드는 일은
생존이었다.” 사장이 내칠끼봐 위장병을 다 입았다는 그는 시간이
나면서 차츰 철이 들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됐다. “남들이 알아주
그렇지 않은 그저 ‘잘 맞는 옷’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누
에게도 어울리는 옷. 그것만이 나의 목표였다.”

런 김 대표는 1977년 2월 마침내 코스모스를 인수하기에 이른다. 늘날 봄바니에의 전신인 셈이다. 봄바니에가 지금의 롯데호텔 내에 지를 것은 1984년. 상호 개명은 2005년의 일이다. 이후 2007 남산 소월길에 짧은 층을 타깃으로 한 저렴한 맞춤양복 매장 봄바에뉴욕의 문을 열기도 했다(1992년 론칭한 드레스·턱시도 전문점 봄바니에웨딩숍도 같은 남산 사옥에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과분하게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인정받았다. 맞춤양복 시장이 예전에 비해 어려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데 감사한다.”

러나 이는 장 대표 특유의 겸손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성실함이야로 성공 비결이 아닐까. 그가 전한 한 가지 일화. “언젠가 새벽녘에 맞추러 창고로 오신 분이 있었다. 얼떨결에 치수를 쟁는데, 그

날 오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양복을
매나 맞춰 입었는데, 당신 치수 재는 것 보니 믿
음이 간다’며 즉시 상품권 80여장을 주문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다. 그분이 바로 고 배현규 한일투자금융회장
이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집 단골이셨다.”
보통 양복점에 구비한 치수 재는 도구가 3~4
가지라면, 봄바니에는 12가지 이상 구비돼 있
다. 그 정도로 장 대표는 꼼꼼한 사람이다. 고
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꼽는 그는 말한다. “고
객의 99%가 내가 만든 옷을 마음에 들어하고
1%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1%의 불만은 개
인적 기호 때문일까.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 만들었
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 맞는 옷’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장 대
표. 그는 좋은 옷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배우고 연
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에 와서 나는 어떤 그림을 남길 것인지
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내가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아무리 생
각해도 그 그림은 다름 아닌 옷이다.” 앞으로 힘이 다할 때까지 옷 만
드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장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45년 경험과 노
하우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더 많은 이들이 좋은 옷을 만들 수
있기를 그는 소망한다.



| 승마화장인 |

골든호스 유봉종 사장

골든호스 유풍종(72) 사장을 빼고 승마화를 이야기할 순 없다. 그는 국내 최초로 승마화를 제작한 인물로, 승마화 제작에 그야말로 평생을 바쳤다. 자그마치 57년 경력이다. 종로구 청운동의 골든호스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전국 유일의 승마화 제조업체로 유명세를 떨쳤다. 현재 전국의 승마화 제조업체는 약 10곳. 유 사장에게 배운 기술자들이 각지로 뻗어나가 자리를 잡은 결과다.

유 사장이 처음 승마화를 만들게 된 것은 16세 무렵. 서울 명동에 있던 한 앙화점의 숙련공으로 일하며 해방 후 정착한 일본인 사장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전쟁 전 어려운 시기였다. 기



을 배워두면 미래가 있을 것 같았다. 남들보다 체구가 작다 보니 앓아서 하는 일이 편하기도 했다.” 양화점에서 26세까지 견습생으로 일한 유 사장은 군대를 다녀온 서른 무렵 독립했고, 이후 10여년간 ‘고통의 시기’를 보냈다. 승마라는 스포츠가 낯설던 시기였으니 신발이 팔릴 리 만무한 일.“1986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만 해도 기껏 한 달에 5켤레 정도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 때 승마가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났다.” 판로가 없어 애를 먹던 무렵에도 유 사장은 한눈 한 번 팔지 않았다.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았다. 다른 일을 해볼까도 싶었지만 그래봐야 실내만 하지 싶어 그냥 그렇게 참고 살았다.” 설움도 적지 않았다.“언젠가 대기업 회장님 한 분이 악수를 청했다. 근데 내 손이 달자마자 확 뿌리치는 거다. 손에 굳은살이 너무 많아 놀라셨다며….” 나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물론 당시 그 회장님은 사과의 의미로 재차 유 사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보배로운 손’이라 친사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옛날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손이었다. 늘 구두약이 뒤범벅돼 새카맸으니, 양잿물로나 겨우 지울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마저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몫이라 여겼다.” 65세 때까지 재단은 물론, 전국의 승마장과 협회를 돌며 주문과 배달, 수선까지 도맡아 했다는 유 사장. 지금은 3명의 제자와 함께 골든호스를 이끌고 있다. 모두 유 사장과는 20년 정도 인연을 맺어온 이들이다. 더욱이 장녀 유자선 실장이 골든호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물론, 오랜 파트너인 아내는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제1순위 조력자다.“1970년 결혼 이후 웬만한 보조 일은 아내가 다 했다. 아내가 나보다 잘못된 부분을 더 빨리 찾아내는데(웃음).”

현재 골든호스는 승마회를 포함한 종합승마용품 매장으로 성장, 국내 승마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망까지 구축,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승마클럽에 승마용품을 납품한다. 업계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교관이나 국가대표 선수, 유명인이 수없이 거쳐갔다. 지금도 고객의 60%는 선수다. 신발의 '질' 하나는 자부한다. 어디에 내놔도 기술적으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는 지금도 사업 확장에는 아랑곳 없다. 기량 향상만이 관심 거리다.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7시면 매장 문을 닫지만, 집에 가서도 기술 연구를 잊지 않는다. 외국 서적을 구해다 새로운 디자인을 공부한다. “유행에 따라 신발 모양은 업그레이드되니까.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TRAVEL

캐나다 온타리오로 떠난 리마인드 허니문 경이로운 대자연 속에서 부부애를 다지다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캐나다 온타리오관광청은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했다. 그 두 번째 행선지인 온타리오 여행의 주인공은 김진배·왕수경 부부. 제주도 정방 폭포로 계획한 허니문 불발 이후, 37년 만에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떠난 리마인드 허니문을 소개한다.



‘공군사병 시절 수송기 편으로 처음 가 본 제주도, 그때 마주한 정방폭포는 대단한 감흥을 주었다. 바다 위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의 장관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고, ‘훗날 신혼여행은 이곳으로 오리라 결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배 씨의 이벤트 공모 사연. 그러나 공교롭게도 결혼식 당일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결항되어 결국 속리산에서 신혼의 첫날을 맞았다고 한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37년째를 맞은 김진배(69)·왕수경(63) 부부.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은퇴 후 현재 ‘전업주부’로, 결혼 후 남편의 격려를 받아 박사과정을 밟은 아내는 대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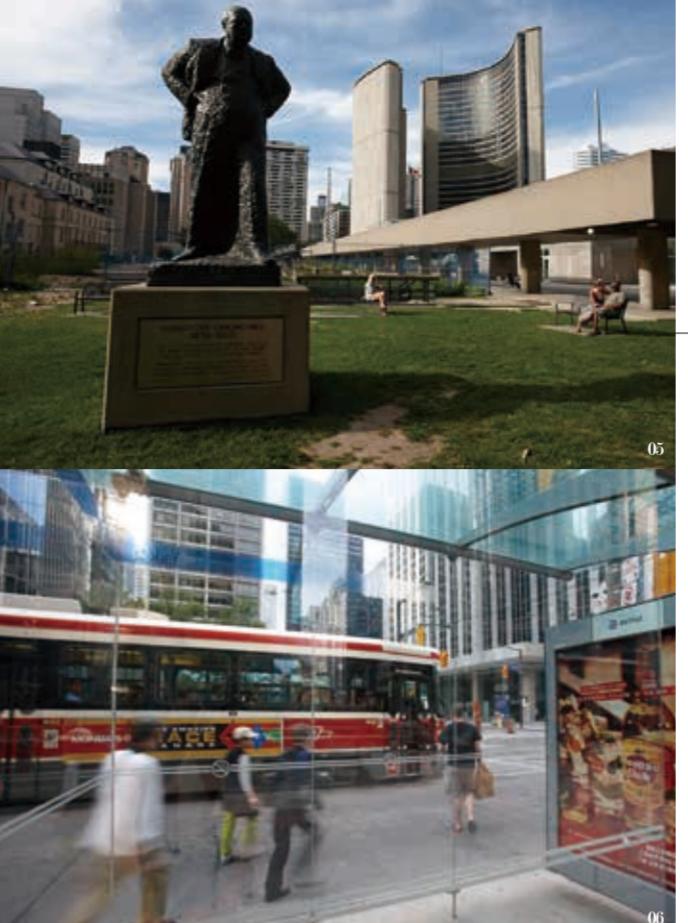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아이셋을 키우며 앞만 보고 달려온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3년 전 2남 1녀가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함과 동시에 김진배·왕수경 부부도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덜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고. 이후 짬짬이 전시회, 공연 등을 보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함께 여행을 다니던 어느 날 발견한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의 리마인드 허니문 2차 프로그램은 마치 자신들을 위한 이벤트 같았다. 제주도 정방폭포를 신혼여행지로 꼽았던 이들에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제2의 인생여정을 설계하는 리마인드 허니문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것이다.

예비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첫날을 마감했다. 다음 날 아침, 근처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했다. 얼마 달리지 않아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폭포는 그 명성에 걸맞은 장관을 연출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잘 알려져 있듯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지대에 걸쳐 있다. 강 중앙의 섬을 기준으로 밀발굽 모양의 거대한 캐나다 폭포와 무지개가 아름다운 미국 폭포로 나뉘는데, 미국 쪽에서는 폭포 옆면만 바라볼 수 있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정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폭포 모두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폭포를 마주한 캐나다 쪽이 감상 포인트 지역이다. 특히 낙하한 물로 인해 높이 솟구쳐 오르는 물보라는 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 날씨가 맑은 날에는 토론토에서도 물보라가 보일 정도라니, 대자연 앞에 와마디 감탄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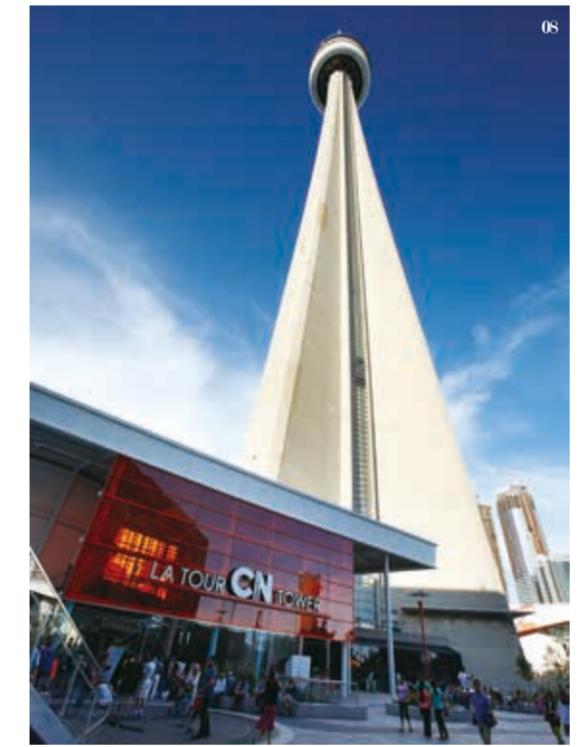
폭포 뒤편의 여행, 안개의 숙녀 호, 헬리콥터, 월풀 제트보트 등 나이아가라 폭포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폭포 뒤편의 여행(Journey Behind the Falls)은 명칭과는 달리 밀발굽 모양의 캐나다 폭포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코스.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에서 시선을 천천히 왼쪽으로 옮겨가노라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안개의 숙녀 호(Maid of the Mist)는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 폭포 바로 밑까지 들어가는 코스다. 거대한 물보라 속에서 폭포와 물아일체가

거대한 물보라의 장관, 나이아가라 폭포

지난 8월 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여행길에 오른 김진화·왕수경 부부.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도착 후 곧바로 첫 번째 목적지인 나이아가라로 향했다. 저녁 식사 후 호텔에 들어와 짐을 풀고 나니 이미 주변이 어둑한 밤. 캐나다의 명물 아이스와인으로 축배를 든 이들은 다음 날 결혼식을 앞둔 5인승 헬리콥터를 타고 나이아가라 일대 상공을 누비며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헬리콥터 투어는 원경의 근사함을 선사한다. 나이아가라 강의 월풀을 내달리는 제트보트는 물벼락을 맞아 흠뻑 젖을 것을 각오해야 하지만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신나는 체험이 될 것이다.



① 낙한 물로 인해 높이 솟구쳐 오르는 물보라가 장관인 나이아가라 폭포, ② 헬기 투어로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를 둘러보는 긴자베-왕수경 부부 ③ 상공에서 비라본 나이아가라 폭포, 섬을 중심으로 왼쪽이 미국 폭포, 오른쪽이 캐나다 폭포다. ④ 19세기 영국풍 건물이 들어서 있는 아담한 마을,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⑤ 차침 동상 뒤로 보이는 건물은 토론토 신 시청사. 두 개의 반원형 건물이 등글게 에워싼 형태가 특징적이다. ⑥ 토론토는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⑦ 최고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리프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에서 와인 시음 후 즐기는 피크닉 런치. ⑧ 토론토의 랜드 마크이자 관광 명소인 CN타워. ⑨ 엔 건물과 현대 건축물이 어우러진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외관. ⑩ 토론토 거리에서 마주친 드럼 연주자.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스카이론 타워. 김진배 씨가 가장 추천하는 곳 또한 이곳인데, 360도 회전하는 전망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폭포를 비롯해 그 일대를 느긋이 감상하는 시간은 나이아가라 체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온갖 색상의 조명으로 빛을 빌하며 해가 져도 존재감을 잊지 않는다. 특히 5월부터 9월 초까지 금요일과 일요일 밤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다. 삶의 희열, 사랑의 기쁨을 주체 못하며 누구라도 시인이 될 법한 여름밤의 향연이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은 유명한 와인 산지이기도 하다. 캐나다 와인은 알코올 향이 약하고 과일 향이 강한 편이어서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이들이 좋아한다고. 특히 겨울을 난 포도로 담근 아이스와인은 고운 빛깔과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내수 소비가 주를 이뤄 수출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와이너리를 방문해 캐나다 와인의 다양한 맛을 경험해



토론토의 랜드마크는 단연 CN타워다.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걸어서 다니면 차로 다니면 보지 못 할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길에서 마주치는 거리의 악사들 공연은 덤이다.

교통을 이용한 토론토 시티 투어

매달 아침, 부부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토론토
향했다. 고풍스런 옛 건물과 현대 건축물이 공존하는 이
는 조각가 헨리 무어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
고 있는 온타리오 미술관, 1만2000여 젤레의 신발과 그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바티슈 박물관, 캐나다 최대 박
물관인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등 예술의 도시로 부족함이
없다. 건축을 전공한 김진배 씨는 건축물에도 많은 관심을

였다. 바타슈 박물관은 캐나다의 유명 건축가 레이몬드 나야마가 신발장에서 착안해 디자인한 박물관으로 피라 모양의 입구가 인상적이다.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본 건물을 디자인해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다니엘 리베스킨 가 레노베이션한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은 다소 파격적인 뒷에 텃에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고.

실 여행의 묘미는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 토론토 관광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버스, 지하철, 차를 이용한 토론토 시내 투어에 나섰다. 명품 숍, 고급 미크, 갤러리 등이 들어선 블루어 요크빌을 비롯해 토론



캐나다 이천-토론토 친환경 3회 우한

캐나다는 지난 6월 인천-토론토 직항편을 첫 취항했다. 이에 투입한 기종은 보잉 777-300으로 이규제큐티브 클래스(비즈니스 클래스) 42석, 이코노미 307석이다. 제큐티브 퍼스트 클래스는 전동마사지 기능과 180도 침대 변환이 가능한 좌석으로 징시간 비행에 편안함을 한다. 또한 다양한 기내 오락 프로그램, 기내 스탠드바, 로플랜 마일리지 혜택, 라운지 및 전용 접객원 서비스 등 캐나다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주 3회(월·목·토) 운항. 예매 에어캐나다(02-3788-0134)

LIVING



패시브하우스, 건강을 부탁해!

고혈압과 당뇨, 여기에 알레르기비염까지…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50대 K씨는 최근 솔깃한 정보 하나를 입수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주거 타입인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누군가 귀띔한 것.

단순히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만 알려진 패시브하우스는 알고 보니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지킴형' 주택이기도 했다.

하우스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사실 패시브하우스는 50대 이상 중·장년 층에게 더 적합한 형태의 집이다. 무엇보다 패시브한 환경이 시니어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전한다. 구체적으로 패시브하우스의 어떤 부분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얘기일까? 먼저, 열교환환기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공기가 공간을 쾌적하게 한다. 환기시스템의 고성능 필터는 황사나 꽃가루 등을 걸러낸다. 이는 알레르기비염이나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을 현저히 줄이는 역할을 한다. 둘째, 고성능 단열 시스템이 찬

에너지로 냉난방이 가능하다. "보온병(혹은 보냉병)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일반 주택이 계속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커피포트 방식이라면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을 최대한 높여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온병 방식이다." 패시브하우스 전문 컨설팅 업체 파우스 김현수 대표의 설명이다.

공기 유입을 제어함으로써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는다. 와풍 차단은 물론이거나 집 안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하니 갑자기 추워지는 테서 오는 쇼크를 방지할 수 있다.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예방에 탁월하다.

더욱이 패시브하우스 특유의 기밀성은 건물 틈새와 균열을 통해 습기가 생기는 것까지 철저히 차단한다. 일반 주택에서 흔히 나타나는 틈새와 균열은 온도 손실을 유발할 뿐 아니라 외벽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곰팡이나 결로 현상을 야기하는데,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 즉, 앞서 K씨처럼 심혈관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비용은 일반 주택의 1.5배

1988년 독일에서 처음 생겨난 패시브하우스는 현재 지속 가능한 건축 양식이라는 인식 아래 전 세계로 활발히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 따르면, 패시브하우스의 중요성에 공감한 유럽에서는 이미 6만 채 이상이 건설됐다. 국내에는 1990년대 후반 처음 도입됐고, 3~4년 전부터 조금씩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상태. 지금까지 서울 시내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60~70채 정도 건설됐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패시브하우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에코하우스이자 힐링하우스인 패시브하우스, 텁은 나지만 가격 때문에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 "현재 초기 건축 비용은 평당 600만 원 선이다. 일반 주택이 400만 원 선이니 1.5배 정도 비싼 셈이다. 일반 주택에는 없는 단열장치, 환기시스템, 창호 등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는 통상 5~10년 정도 거주하면 충분히 회수 되는 수준이다." 파우스 김현수 대표의 설명. 김 대표는 "패시브하우스에 거주하는 동안 느낄 수 있는 쾌적감은 감히 비용으로 환산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01

6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만 열린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자연유산인 리도 운하는 미국과의 전쟁 직후 물자 운반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1826년부터 6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한다. 보트를 타고 오타와 강에서 다운타운 남동쪽으로 흐르는 길이 202km의 운하를 따라가며 강과 공원, 건물이 조화를 이룬 오타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리도 센터 북쪽에 위치한 재래시장 '바이 워드 마켓'은 현지에서 생산된 과일과 야채 판매장, 식료품점, 카페, 레스토랑 등이 모여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들른 곳으로 그때 대통령이 구입한 단풍잎 모양 쿠키는 일명 '오바마 쿠키'로 불리며 이곳의 명물이 되었다고.

바이워드 마켓 내 오래된 석조 건물에 자리한 '커티아드 레스토랑'은 온타리오 여행의 마지막 만찬 장소, '리마인드 허니문을 통해 소원을 이루었다'는 김진배·왕수경 부부의 말 속에 이번 여행의 의미와 가치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듦다. 동행하는 내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아껴주는 모습에서 40여 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이들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문의 주한 캐나다관광청(02-733-7790, www.keepexploring.kr), 온타리오관광청(www.ontariotravel.net/kr)

01 리도 운하의 보트 크루즈는 고즈넉한 도시를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02 통화 같은 아름다운 칸스턴의 명소 천섬. 03 국회의사당 건물 벽에서 펼쳐지는 '모자이카 사운드 앤 라이트'. 04 북미 지역에서는 오타와에 유일한 세계적인 요리 학교 르 고르동 블루. 이곳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오찬을 즐긴 김진배·왕수경 부부. 05, 06 재래시장 '바이워드 마켓'에는 식료품점, 카페, 레스토랑이 모여 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도 판매한다.



01

05

06



김진배·왕수경 부부가 꼽은 캐나다 온타리오 허니문 BEST 5



◇ 나이아라 폭포

관광 명소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가서 보면 실망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나이아라 폭포는 당연히 좋지 않다. 요란한 굉음과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휘몰이치는 거대한 물보라의 장관은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준다. 인개의 숙녀 호는 나이아라 폭포와 허니가 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멋진 체험을 선사한다.

◇ 스카이론 타워

타워 외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노란색 엘리베이터가 특징인 전망대는 캐나다 폭포와 미국 폭포 중간에 위치해 두 폭포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 아래 360도 회전 레스토랑에서는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며 노을자는 저녁부터 밤이 되어 조명 빛으로 빛나는 모습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폭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토론토 건축물

파격적인 외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토론토 온타리오 박물관을 비롯해 토론토에는 쟁쟁한 건축물이 많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Gehry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Gehry가 설계한 온타리오 미술관과 핀란드 건축가 빌리오 레벨이 설계한 두 개의 반원형 건물을 동시에 에워싸서 마주하는 형태의 신 시청사는 놀치지 말 것.

◇ 천섬

온타리오 호수 동쪽 끝 킹스턴에 있는 천섬은 세인트로렌스 강 위 187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백만장자 조지 블트가 아내를 위해 지은 볼트 성이 있는 히트 섬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성이 완공되기 전 아내가 사망했고, 이후 빙치된 섬을 국가에서 매입해 단장을 마친 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LOOK



WATCH



THE SOUND OF TIME

요즘은 전기 불빛이나 형광 도료로 밤에도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 어두운 밤에 시간을 알기 위해 색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바로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소리를 내는 시계에 매료되었는데, 인도 페티알라의 왕 부핀드라 심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가장 유명한 컬렉터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시계는 1909년도에 제작된 크로노그래프 포켓 워치로 알람 기능은 물론 날짜와 문페이즈 기능을 갖췄다. 또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오너 제임스 워드 패커드는 1918년 그랑 소네리(grande sonnerie, 매 15분과 매 시에 자동적으로 소리를 울리는 기능)와 프티 소네리(petite sonnerie, 15분마다 소리를 울리는 기능)를 장착한 크로노그래프 포켓 워치를 주문 제작했는데, 15분과 7.5분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1755년 설립 이래 선보인 역사적인 시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9월 25일~28일 홍콩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시계박람회 워치스 앤 원더스(Watches & Wonders)의 '소리를 내는 시계' 전시를 통해서다. 골드 케이스에 기요세문양으로 다이얼을 장식한 1812년 포켓 워치를 비롯해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닌 구한 시계를 감상하고자 한다면 초대장을 자침해야 한다. 초대장을 www.vacheronconstantin.com/the-sound-of-time에서 신청 가능하다.



PIAGET DANCER 2 TONES

1986년 첫선을 보인 피아제 당시 위치는 군더더기 없는 우아한 디자인과 클래식한 매력으로 시장받아왔다. 올해 피아제가 새롭게 선보인 피아제 당시 투톤은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를 교차 적용해 컬렉션에 다양성을 더했다. 원형의 초박형 케이스에 담백 모양 립크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연결된 골드 브레이슬릿은 피아제 매뉴팩처의 장인이 모두 수공으로 제작한 것. 28mm와 38mm 사이즈로 출시되는 피아제 당시 위치는 3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화려함을 더했으며, 피아제 자체 제작 430P 초박형 기계식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02-3449-5934

2013 CHAUMET ATTRAPE-MOI PRECIOUS WATCH

233년의 역사를 지닌 소메에서 선보이는 프리서스 워치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진 시계.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보인 아트랩—무아 프리서스 워치 9개 종 3개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 디아일에 나비와 잠자리 문양을 장식한 각기 다른 디자인의 눈길을 끈다.

1. 아이보리 컬러 사파이어 글로스로 세팅된 디아일에 미니어처 페인팅 기법으로 드로잉한 잠자리 이미지가 생동감 넘친다. 케이스에는 1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 화이트 자개 디아일에 제트 블랙 나비나 임크로 나비의 날개를 정교하게 표현했다. 3시, 6시, 9시, 12시를 가리키는 인덱스는 카보숑 컷 블루 사파이어로 장식했으며, 케이스에는 1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 블랙 자개 디아일에 화이트 자개로 나비를 세팅하고 웨스트와 레드 컬러 칼세도니아, 핑크 컬러 스모키 큐artz를 하나하나 박아 넣어 나비의 날개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케이스에는 1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의 02-3442-3159



THIS MAN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로하는 고독한 사진쟁이 김영재 (주)세한프레시전 대표

기업의 오너이니 으레 감성보다 이성이 앞서는 냉철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굴지의 제조업체를 이끄는 김영재 대표는 한마디로 풍부한
감수성의 소유자다. 우리 곁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여러 존재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에선 쓸쓸함이 물어난다. 자신이 지난 30년간 공들여 찍은 사진 속 풍경들처럼.

기록의 의무 김영재 대표는 어릴 때부터 워낙 예술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다. 젊은 날의 한때를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에 바친 경험이 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음악 디제이로 활동했고, 다녀와서는 미술을 했다. 그림은 물론이고 금속공예에도 재미를 붙였다. 아직 집에 당시 만든 작품이 여러 점 남아 있다.” 그의 주변에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다이 같은 전력 때문이다. 최근에는 양평의 별장에서 1970년대 음악다방 스타 DJ 정규호를 비롯한 친인들 몇몇이 모여 음악감상회를 연 것이 세간의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그런 김 대표가 사진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약 30년 전의 일이다. 뭔가 색다른 예술 장르가 없을까 고심하던 중 사진이 눈에 띄었고, 자체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 한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기초지식을 쌓은 후 김 대표는 처음 한동안 안개를 찍는 데 열중했다. 왜 하필 안개를? “글쎄, 뭐랄까. 사물을 바로 바라보는 것보다 인개처럼 가려져 있는 것이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오래 기다려서 그 실체를, 깊이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좋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몰두한



김영재 대표는 1987년 (주)세한프레시전(전신 세한정밀)을 설립했다. 도어락 전문 제조업체 세한프레시전은 22년 전 국내 최초로 도어핸들을 제작한 회사로 유명하다. 현재는 첨단 도어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세한루체를 통해 O-필리아의 시스템도어 수입을 병행하고 있다. 김 대표가 사진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지금껏 한 번의 개인전과 서릉다섯 번의 그룹전을 열었다. 지난 2009년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에 입상하기도 했다.

것은 카메라를 들고도 15년이 훌쩍 지나서다. 그즈음 그가 찍기 시작한 것은 전국의 장터 풍경이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다. 내 나이에는 잊히는 것들을 기록해 후세에 물려줘야 할 의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는 지금껏 전국 80여 곳의 장터를 찾았다. 피리 부는 솜씨도 일품이어서 장터 어른들과도 곧잘 친해진다는 김 대표. “장터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사진쟁’이라고 하지만 나중엔 ‘피리쟁’이라고 부른다. 저녁이 되면 피리를 불며 마걸리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좋다.” 그는 12년 전 문화·예술계 관계자 20여 명과 아마추어 사진동호회 ‘장터포토클럽’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매년 그룹전을 열어 장터 사진을 선보이고 있다.

7번 국도 그리고 고독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김 대표의 안타까움은 7번 국도에까지 가닿는다. 직선도로가 들어서면서 폐쇄의 위기를 맞은 해변도로가 4년 전부터 그의 관심을 끈 것이다. 동해 7번 국도변의 여러 소도시를 오가며 활영한 그의 사진에서는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난다. 특히 비가 올 때나 태풍이 몰아칠 때는 동해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는 거친 자연의 ‘화(火)’가 쓸려나간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낯익은 고독을 설새 없이 카메라에 담는다. 그런 사진에는 유독 여백이 많다. “쓸쓸한 느낌이 내게는 편하고 익숙하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온전히 다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그런 우리는 근원적으로 쓸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

김 대표의 이 같은 감수성은 내년 10월 열릴 개인전에서 아낌없이 발휘될 예정이다. 양희은이 부른 노래 ‘세노야’를 메인 테마로 잡아 구상 중인 전시에는 7번 국도에서 활영한 사진들이 충출동한다. “집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노야’를 듣는다. 노래 속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리다보면 더 우울해지는 거다(웃음).” 물론 그 우울함이 작업에는 더없는 양분이 될 터. 두 번째 개인전을 앞둔 김 대표는 각오도 남다르다. “좀 더 스킬을 보완해 완벽에 가까운 사진을 찍도록 하겠다. 욕심을 부리겠다.” 지금 자신이 물두하고 있는 주제에 더 깊이 다가가고 싶다는 김 대표는 “인간 삶의 현장을 찍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다.

행복한 순간 사진에 대한 김 대표의 정의는 단순하지만 명료하다. “사진이란 행복이다. 내가 걸어온 흔적이 남은 거니까.” 그도 그럴 것이 기업가에게 시간은 더욱 가치 있는 법. 언제나 남보다 한발 먼저 새로운 뭔가를 개발해야 하니 자연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흔적을 남길 틈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김 대표에게는 예외다. “시간이 지난 후 예전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모든 잡념이 사라진다.”

카메라만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김 대표는 요즘도 곧잘 방방곡곡을 떠돈다. 한번 출사에 나서면 3~4일은 보통이다. 그의 지극한 ‘사진 사랑’이 혹여 일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전혀 지장 없다. 꼭 회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출사가서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얻어 오기도 한다. 직원들도 다 응원해준다(웃음).” 더욱이 기업 가로서 맞서야 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 앞에 사진은 오히려 보탬이 된다고.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보다 차분하게, 여유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돋는 훌륭한 멘토 같은 존재로 말이다.

SENIOR EXPO

시니어엑스포에 참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마케팅의 첫걸음. 그런 의미에서 10월 열리는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는

시니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니어엑스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동 주최사인 일본 SMS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SMS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으로 시니어 비즈니스가 가장 활성화된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시니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다 엑스포 사무국은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다. 엑스포 참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시니어 비즈니스 협의체는 기업 간 교류를 기본으로 추진하며, 협의체 소속 기업의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실리를 찾길 수 있는 행사 올해에는 참가 기업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참가 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엑스포 쿠폰북이 바로 그것. 엑스포 사무국은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쿠폰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쿠폰북은 행사에 앞서 조선일보 주요 독자에게 배포하며, 행사 당일 방문객에게 배포한다. 기업 부스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TV조선 홍해결의 닉터콘서트(공개 녹화),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소 세미나 등 시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3 새롭게 발굴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시니어 커뮤니티인 AARP(미국은퇴자협회)가 공식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엑스포 사무국은 미국 및 해외 시니어 비즈니스 동향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을 위해 AARP와의 사업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글러 엑스포 주최사인 ‘시니어파트너즈’는 행사 직후 AARP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인증(AARP Best Employers Award)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현장 문의를 참여 기업에게만 제공한다. 또한 일본 시장 진출 등 사업적 연계가 필요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업과 시니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운영 부수 150개, 참가 기업 70개, 방문객 1만2000명을 기록하는 등 첫 회 행사를 통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이를 발판으로 더 많은 기업과 방문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키웠다. 사전 조사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참가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행사장을 넓혔다. 또한 행사 기간이 지난해 2일에서 올해 3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3만여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02-3218-6249, www.seniorexpo.co.kr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Seoul International Senior Expo

2013 서울국제 시니어엑스포

SEOUL INTERNATIONAL SENIOR EXPO



주최 | PARTNERS | 시니어파트너즈 | SMS | Global Partner | AARP

THIS CAR

K9과 떠나는 건축 기행③ 시대를 이끌어가는 앞선 생각이 또 다른 새로움을 만들다

근대 건축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인천, 군산은 물론 근대 건축물을 복원한 '길거리 박물관'을 조성 중인 부여를 비롯해 전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기아자동차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축 기행 세 번째 장소는 1916년 준공한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로,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요람 배재학당이다.



건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과 문화를 반영해 만든다. 한 나라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성격을 규정하는 것 또한 건축물이다. 최근 건축 기행이 새로운 여행 방식의 하나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역사적인 건축물은 물론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을 감상하기 위한 여행은 미술관 기행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 박물관으로 그 안에 자리한 건축물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과 다름없다.

기아자동차 K9의 건축물 탐방 세 번째 행선지는 근대 건축물 배재학당이다.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서구의 건축 양식이 유입됨으로써 한국의 근대 건축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뒤이은 일제 강점기로 인해 일본 건

축 양식의 영향이 불가피했다. 쇄국정책 아래 월치 않던 개항으로 유입된 서구 문물은 능동적이라기보다 피동적이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 문화의 말살과 폐를 함께 깨닫기에 근대 건축은 본래 가치보다 평화되고 청산해야 할 유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근대 건축은 당시 힘없던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런 까닭에 당대 아름다운 건축미를 외면하고, 오늘날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았을까? 일제의 잔재물이라는 오명 때문에 보존하기보다는 없애버리고자 한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어떤 부침의 시대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형성된 문화와 건축 또한 우리의 것, 이땅의 것임에 틀림없다.

형태에는 문화와 정신이 담긴다

경운궁(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정동 일대는 근대의 외교, 종교, 교육 등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외교관과 서양 선교사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서양식 해외 공관, 교회, 학교 등이 곳곳에 들어섰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러시아공사관의 첨탑, 정동 교회 등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16년에 지은 배재학당은 1900년대 초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근대 건축물로 가치가 높다.

"한국 근대 건축은 서양의 고전 건축 양식을 차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일정 부분 서양의 건축 양식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서양식을 차용하더라도 그 안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국적 성향이 담겨 있다. 예컨대 고더 양식으로 지은 건물이라 해도 서양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건축 양식은 따랐을지도 벽돌의 크기, 쌓는 방법 등은 우리 식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근대 건축은 서양, 일본 등을 통해 타율적으로 이식된 건축이라기보다 동서양의 다양한 양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배재대학교 건축과 교수이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관장인 김종현 씨는 말한다.

기아자동차가 디자이너 수장으로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 혁신을 도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개항이나 근대화는 수동적이었지만 유명 디자이너의 영입이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세계화를 목표로 한 전략이라는 근본적 차이는 차치하고 말이다). '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 디자인을 담당했던 외국인'이지만 그가 직선의 단순함(The Simplicity of the straight line)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아자동차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완성한 저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까지 구축된 기아자동차의 기술, 국내 소비자의 성향 등이 반영되었음을 물론이다.

국내 기술과 해외 디자이너의 만남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는 프리미엄 세단 K9으로 구현되었다. 헤드램프를 라디에이터 그릴보다 높게 장착해 고성능 럭셔리 세단으로서 강렬한 느낌을 주고, 범퍼와 후드의 구분 라인을 후드 쪽으로 상향 이동하고 후드 부위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볼륨감을 살립으로써 품격을 높였다. 측면부는 후드에서 앞 범퍼 하단까지 하나의 면으로 연결되는 '원스킨 스타일'의 후드·범퍼를 적용해 역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실루엣을 완성했다. 한편, 펜더 가니시에서 뒷문까지 연결되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직선을 사용해 세련미를 더했다.

혁신은 난관을 동반한다

배재학당은 건축적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 또한 상당하다. 3층 규모의 작은 벽돌 건물로, 고층 유리 건물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초라하거나 위축돼 보이지 않고 당당한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축물 자체에서 발산되는 아우라 덕분에 주변 빌딩의 물리적인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이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양식 건물이 즐비한 정동은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전파되는 글로벌 타운이었다. 그중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함께 어우러져 전과목을 영어로 수업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의제를 정해 토론식 교육을 한 배재학당은 신교육의 현장이었다. (사



국내 기술과 해외 디자이너의 만남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는 프리미엄 세단 K9으로 구현되었다. 럭셔리 세단으로서 강렬한 느낌을 주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볼륨감을 살립으로써 품격을 높였다



배재학당은 1885년 미국인 선교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1858~1902)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이다. 고종(1852~1919) 황제는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으로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이름을 하시했다. 2008년 7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관장 김종현)으로 새롭게 태어난 배재학당 동관(서울시 기념물 제16호)은 1916년 준공한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로 아펜젤러가 전인교육을 실천한 공간이자 수많은 근대 지식인을 배출한 신교육의 요람이다. 근대교육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소장품과 함께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체험교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월요일과 공휴일 휴관. 문의 02-319-5578, <http://appenzeller.pcu.ac.kr>

서삼경〈논어〉〈맹자〉와 같은 한문학에서 나아가 물리, 화학, 지리, 천문학, 광학, 체육, 음악, 미술 등 신학문을 배우고 접하면서 재학생들은 열린 사고를 갖게 되었다. 배재학당이 주시경, 나도향, 김소월 등 근현대시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을 양성할 수 있었던 것도 혁신적인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배재학당 창립자 아펜젤러는 교육을 받으려 오는 양반들에게 '하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침을 내려야 할 정도였다. 늘 하인을 대동하던 양반들의 습성과 관습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자동차에 관한 사람들의 관점 또한 마찬가지. 프리미엄 세단은 쇼퍼드리븐카(운전 기사를 두고 타는 차)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K9은 뒷좌석을 중시하는 고급차의 품격을 유지하되 주행감을 즐기는 운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을 꽂았다. 서로 상반되게 여겨지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역발상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K9은 스티어링 조타감을 개선하고, 험로 주행 시 충격을 분산시켜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최상의 승차감을 구현했다. 또한 '전자제어 에어어서스펜션'은 고속 주행 시에는 차고 하향으로 차체 안정성을 향상해 승차감이 편안하다.

뿐만 아니라 오너 드라이버가 운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 장치를 탑재했다. 속도와 내비게이션, 각종 안전운행 경보 등을 띠워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비롯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주차 시 차량의 앞·뒤·좌·우를 보여주는 360도 어라운드 뷰시스템 등이 주행의 편의를 돋는 것. 그런데, 최근 들어 대형 세단의 운전석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뒷좌석에 있는 오너'의 감성을 중시하던 시점에서 벗어나 '앞좌석에 있는 오너'의 만족도 또한 고려하는 것. 이즈음, K9은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FINANCE

자산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절세를 활용한 효과적 증여와 상속

금융과 부동산 관리를 통한 자산 증식

재단 설립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



1 절세를 활용한 효과적 증여와 상속

전략을 세워 미리 준비하라!

자산관리의 기본은 절세에서 시작된다.

특히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를 살피는 자산운용, 닥쳐올 세금 폭탄에 대처하면서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하는 증여와 상속에 대해 소개한다.

중국 고서 <귀심요람>에 ‘빈천은 근검을 낳고, 근검은 부귀를 낳고, 부귀는 교사(偽奢: 교만과 사치)를 낳고, 교사는 음일(淫佚: 방종과 낙태)을 낳고, 음일은 다시 빈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자산관리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 문구다. 성실히 일하고 아끼며 축적한 재산을 교만과 사치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자산관리의 해법이 될 것이다. 어떻게 베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옛말처럼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헤리티지 플래닝(Heritage Planning)’이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는 유산(遺産)이라는 뜻으로,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정신적 전통을 일컫는다. 단순히 어떻게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강하다.

재정적 자산은 은행 예금·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자산과 주택·오피스텔·빌딩 등 수익성 부동산과 같은 물질적 자산을 일컫는다. 재정적 자산의 관리란 금융과 부동산 같은 보유 자산의 증식과 이전 전략을 비롯해 상속·증여·양도에 따른 세금 절세, 사망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효과적인 관리 등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 재정적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은 다름아닌 상속세다. 너무 앞서 고민할 필요 없다고 여겨지지 몰라도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 만큼 절세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서두를 수록 유리하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증여를 하고 나면 자녀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져 증여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뒤늦게 증여를 하려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기도 하다. 재산 상속 또한 간단하지 않다. 제때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녀 간에 상속싸움이 벌어져 결국 부모님 사후 형제자매가 서로 왕래도 안 하며 지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의 집 일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집,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금전적 손실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원수’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편, 상속세를 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를 살피는 자산운용, 닥쳐올 세금 폭탄에 대처하면서 가족 간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증여와 상속을 통한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상속세는 문자 그대로 상속하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속재산이 줄면 상속세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일 터. 따라서 사전 증여, 보험가입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3000만 원, 미성년 자녀 1500만 원이다. 그러나 사망 직전 10년간 증여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형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부모가 종신보험에 들었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해 보험금을 받는다면 자녀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보험을 생전에 자녀가 들어준 것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기, 서브 프라임, 유럽재정위기 등 수많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평생 동안 열심히 모은 자산임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사망과 함께 자산의 최고 50%가 줄어든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기억하라, 절세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세법 및 과세 정책을 주시하라

자녀 간 상속 분쟁이 우려된다면 최근에 선보인 유언대용 신탁도 주목할 만하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나눈 다음 재산 상속 절차가 진행되며 때문에 법적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시기 설정도 가능해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유고 시 법인에게 상속함으로써(세법상으로는 유증이라고 함) 상속세율이 아닌 법인세율로 부담해 세금을 낮추고, 상속인이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세법 및 과세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건강 검진을 받듯 세금관리 또한 이미 짜놓은 전략에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증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면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정 자녀에게 상속하려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유류분(일정한 상속인을 대체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부모가 종신보험에 들었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해 보험금을 받는다면 자녀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보험을 생전에 자녀가 들어준 것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 Gettyimages/multis

BULLETIN



시니어의 행복 업그레이드 SENIOR PARTNERS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받는 시니어파트너즈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가 고령친화산업 유공 분야 정부 표상을 받았다.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부문’ 장관 표창을 받게 된 것. ‘고령친화산업 진흥부문’에서 기업이 표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유공분야 표상은 고령친화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법·제도 개선 등에 힘쓴 기업 혹은 단체·개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서울국제나이아엑스포 및 시니어 페털 유어스테이지 운영, 시니어 전문 매거진 발행, 은퇴준비학교 운영 등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시니어파트너즈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시니어파트너즈 전영선 이사는 “시니어파트너즈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이래 국내 유일의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시니어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상은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기른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8월 29일 열리는 시니어&장애인엑스포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ews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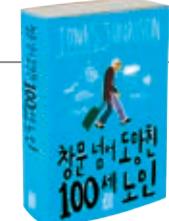


일 비중때 소가죽 브리프케이스
기울을 압두고,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면 늘 메는 가방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가죽 브랜드 일 비종에서 새롭게 선보인 브리프케이스는 어떤가. 천연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수납공간이 많고 가방의 업무용 디자인 백으로 제작된다. 어깨끈이 함께 있으니, 어깨에 둘러 캐주얼한 스타일을 연출하면 한층 젊어 보일 수 있다.

문의 02-548-2992

브리오니,
신라호텔 매장 리뉴얼 오픈
브리오니 팬들에게 희소식.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브리오니가 경충동 신라호텔 내 위치한 부티크의 리뉴얼 오픈을 알렸다. 나부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 등을 새롭게 단장해 순수맞이 준비를 마친 상태. 신라호텔이 문을 닫고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에 들어간 지 약 7개월 만이다. 현재 신라호텔 브리오니 부티크에서는 캐주얼과 클래식 섹션을 나누어 배치, 대표 아이템인 스트를 비롯해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캐주얼 웨어와 가방·신발·모자·선글라스 등 다양한 액세서리 아울렛을 소비하고 있다. 한편, 브리오니는 F/W 시즌을 거냥해 최고급 맞춤복 서비스인 MTM(made to measure) 이벤트를 오는 9월 4~5일 이를 동안 개최한다. 브리오니의 마스터 테일러가 직접 방문해 고객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미리 문의하는 게 좋겠다.

문의 02-2230-1321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첫 소설. 1905년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주인공 ‘알란’이 살아온 100년의 세월을 유쾌하게 그렸다. 알란의 일생을 따라가니 보면 어느새 현대의 주요 사건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속에서 어느새 이데올로기로 묶인 무엇인지,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묶음이 생각하게 되는 작품. 요나스 요나손 저, 열린책들.

Books



〈나뭇잎 도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266종의 나뭇잎을 4단계로 분류한 그 각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잘 모르는 나무나 나뭇잎이라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분류해보면 나무의 이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잎이 가지에 붙어 있는 모양, 잎 가장자리 톱니의 유무 등에 따라 나뭇잎을 분류해보니 보다 나은 지식을 차곡차곡 쌓게 될 것이다. 이광민·소경자 저, 나무와환경연구소.

Stationery



동블랑, 그리고 발자크

지난 1992년부터 작가 에디터를 선보이고 있는 몽블랑이 (고리오 영감)으로 잘 알려진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를 올해의 작가로 꼽았다. ‘오노레 드 발자크’ 에디션은 19세기 유럽 스타일과 발자크의 개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이다. 기요세 페린(guilloche pattern, 새까풀을 꾼 것 같은 S자 모양의 무늬)으로 장식한 고급 블랙 레진과 그레이 레커로 제작한 보다는 세련된 파리 신사의 스티일을, 청록빛 레이스로 장식한 클립의 상단은 발자크의 지팡이를 떠오르게 한다. 이번 에디션은 만년필, 수성펜, 볼펜, 사프 팬슬로 출시된다. 전 세계 한정 수량. 문의 02-3485-6627

Notice

제1기 시니어조선 명예기자 모집

(시니어조선)에서 시니어들의 삶과 산업 전반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전해줄 명예기자를 모집한다. 시니어들이 살아 있는 이야기,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폭넓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신발된 명예기자 취재 및 기사로 작성한 내용은 ‘시니어조선닷컴’, ‘유어스테이지닷컴’ 등에 게재된다. 활동은 6개월 월 2회 취재 및 기사 작성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대체로 대한민국의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우 다음 기수로 연장도 가능하다.

열정과 의지, 그리고 능력을 겸비한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남들은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기호ism으로 기적 차운하고, 달달하고 여기는 것들에 반기기를 드는 이들. 이들을 ‘삐딱사고자’라고 한다. 기자 출신의 저자는 우리 사회 내 59명의 ‘삐딱사고자’를 소개하며 그들의 이로운 면면을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창조적 사고방식을 관심찰ochere평범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유르겔 쉐퍼 저, 프리학



〈아니면 어때?〉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만한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 평생 회사와 집을 오가며 무의미하게 살다 은퇴한 외로운 남자 ‘해럴드’에게도, 소심한 은퇴자 해럴드가 옛 동료에게 편지 한장을 받은 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먼 여정을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인생의 여러 주역을 찾고자 자리를 괴롭힌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저자는 후두암으로 들어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구성했다. 레이첼 조이스 저, 믿음사.

BAUME & MERCIER

MAISON D'HORLOGERIE GENEVE 1830



CLIFTON

www.baume-et-mercier.com

제품문의 롯데 에비뉴엘 02 2118 6225 롯데 부산본점 051 810 4128

서울/경기 롯데 에비뉴엘 현대 무역센터점 노블워치 논현점 아이파크몰 용산점 AK플라자 분당점 신세계 인천점 부산/울산 롯데 부산점 광복점 현대 울산점
면세점 롯데면세 본점 신라면세 본점 제주점 인천공항점 워커힐면세